

熊津期 초반 百濟의 對高句麗 戰線과 對應

장수남*

1. 머리말
2. 高句麗의 南進과 戰線의 형성
3. 築城과 외교를 통한 대응
4. 맺음말

1. 머리말

백제는 475년 고구려의 공격을 받아 한성을 잃었다. 계획된 사비천도와는 달리 한 순간에 왕도를 한성에서 웅진으로 옮기게 된 그 무렵 백제왕들은 위기를 극복해야만 했다. 무엇보다 이들을 위협한 것은 고구려의 남진이었다. 백제는 고구려와의 戰線에서 안전하게 백제의 강역을 지켜내야만 실추된 백제의 왕권을 회복하고 지배체제를 재건할 수 있었다. 따라서 웅진기 왕들에게 고구려는 왕도를 함락시킨 적이었을 뿐만 아니라 반드시 대응해야만 하는 상대였다.

* 대전대학교 강의교수

그 무렵 백제와 고구려의 戰線에 대한 연구는 많이 이루어졌다. 기존 연구의 주된 쟁점 중에 하나는 한강유역의 상황이다.¹⁾ 이것은 『삼국사기』 기록과 고고학 자료를 바탕으로 하여 백제의 영유설²⁾, 고구려의 영유설³⁾ 그리고 최근에는 한 나라가 독점한 것이 아니라 백제와 고구려 사이의 완충지대로 보는 설로⁴⁾ 나눌 수 있다.

1) 475년 백제가 한성을 잃은 후 한강 유역의 동향에 관한 현황은 다음의 논문에 잘 정리되어 있다. 김현숙, 「475~551년 한강 유역 領有國 論議에 대한 검토」, 『향토서울』73, 서울시사편찬위원회, 2009.

2) 이 견해는 『삼국사기』 백제 본기를 신뢰하는 논리에서 시작한 것으로 이미 조선 시대 안정복, 정약용, 한진서의 견해가 있으며 475~551년 기사를 신빙하는 전체에서 입론하고 있다. 『삼국사기』를 바탕으로 한 백제의 영유설은 김병남에 의해 가장 활발히 연구되었는데 만약 백제본기의 기록을 부정한다면 웅진기 백제의 대외 관계는 설명될 수 없다고 지적하였다. 김병남, 「백제 동성왕대의 대외진출과 영역의 확대」, 『한국사상과 문화』 22, 한국사상문화학회 2003, 222쪽. 고고학적 입장에서는, 고구려 유적으로 거론되고 있는 보루가 행정 기능보다는 군사 요새의 일부임에 주목하여 고구려 영유설을 부정하고 있다. 특히 보루군은 고구려군이 장기간 주둔한 것이 아니라 일시적인 주둔을 보여주는 것으로 해석하고 있다. 심광주, 「남한 지역의 고구려 유적」, 『고구려발해연구』12, 고구려 발해학회, 2001; 문안식, 『백제의 흥망과 전쟁』, 혜안, 2006. 서영일은 한강 이남의 일부 유적에서 고구려 토기가 발견되는 하지만 그 규모나 유물 개체수가 고구려가 한강유역을 실제 지배하였다는 근거가 되기에 부족하다고 지적하였다. 서영일, 「한성 백제의 교통로 상설과 웅진천도」, 『향토서울』 72, 2008.

3) 고구려 영유설은 기본적으로 『삼국사기』 백제 본기의 기록을 부정하고, 한강 유역의 고구려 문물을 근거로 하여 한성 함락 후 고구려가 한강 유역을 지배했다고 보는 것이다. 『삼국사기』 백제본기 기록에 부정적인 입장은 전면 부정설, 지명 이동설, 조작설, 기사 오삽입설 등으로 다시 세분할 수 있다. 고고학계에서는 서울구의동 유적, 진천 대모산성, 청원 남성골 산성, 대전 월평산성, 용인시 석실묘 등 고구려 유적이 확인되었음을 근거로 백제 영유설을 부정하고 있다. 최종택, 「고고 자료를 통해 본 백제 웅진 도읍기 한강유역 영유설 재고」, 『백제연구』47, 2008. 최근에는 한성함락 이후 고구려가 한강 유역을 점유하였을 뿐 아니라 영역지배를 관철했다는 견해도 제기되었다. 양시은, 「고구려의 한강 유역 지배방식에 대한 검토」, 『고고학』 9-1, 중부고고학회, 2010.

4) 이 견해는 긍정설과 마찬가지로 『삼국사기』 백제본기를 신뢰하며 475년에 한성이 함락된 후 고구려가 한성지역을 장악하지 않고 중요한 거점으로 확보했다고 보는 것이다. 그리고 고고학적 근거로 들고 있는 대전 월평산성이나 진천 대모산성의 경우 고구려 유물이 출토되기는 했지만 아직 해결되지 않은 문제들이 있기 때문에 고구려가 이러한 거점들까지 영역화했다고는 보기 힘들다는 것이다. 그러면서 한강 유역은 백제와 고구려의 완충지대이지만, 여전히 백제의 연고권이 더 강하게 작용하고 있었을 것이라고 보는 입장이다. 박현숙, 「5~6세기 삼국의 접경에 대한 역사지리적 접근」, 『한국고대사연구』 58, 한국고대사학회, 2010.

기존의 연구에서는 백제와 고구려의 입장에만 주목하여 양국의 戰線을 비정하는 경향이 있었다. 그에 따라 국제관계망의 변화양상에 대해서는 상대적으로 소홀히 다룰 수밖에 없었다. 이 글에서는 당시 양국의 주변 상황, 즉 고구려와 중국과의 관계, 중국과 백제와의 관계 그리고 양국과 신라와의 관계도 살펴보고자 한다. 이는 고구려가 백제의 새로운 수도인 웅진 가까이까지 내려갔음에도 불구하고 웅진이 함락 당하지 않을 수 있었던 이유, 그리고 동성왕대에 백제의 국가체제가 재건될 수 있었던 이유와 관련이 있다고 생각한다.

따라서 이 글에서는 주변국의 정세도 같이 고려하여 백제·고구려의 戰線 推移를 살펴보고 백제가 어떻게 고구려의 南進에 대응하여 새로운 왕도인 웅진을 지켜냈는지에 주목해 보고자 한다. 그 과정에서 고고학 자료를 분석, 고구려의 남진 상황을 통해 전선을 추정해 보고자 한다. 이어 잠시나마 백제의 왕도 근처에까지 내려와 있는 고구려에 백제가 어떻게 대응 하였는지를 살펴보고자 한다. 주목한 것은 축성 사업과 외교적 노력이라는 양축이다.

2. 高句麗의 南進과 戰線의 형성

가. 고구려의 남진과 據點

475년의 한성 함락은 이미 예견된 일이었다. 개로왕은 재위 후반에 무리한 토목공사를 벌여 ‘창고가 텅 비고 백성들이 곤궁해져 있어 그 상황은 알을 쌓아 놓은 것만큼이나 심하였다’⁵⁾고 한다. 즉, 고구려의 공격에 적절히 대응할 수 있는 인적·물적 자원이 고갈된 상태였던 것이다.

5) 『삼국사기』 권25 백제본기3 개로왕 21년조, “是以倉庾虛竭 人民窮困 邦之隄柵 甚於累卵.”

고구려 장수왕은 그와 같은 허점을 노려 한성을 공략하였고 백제는 제대로 대응하지 못한 채, 왕도를 버리고 웅진으로 천도할 수밖에 없었다. 그 당시의 모습은 『삼국사기』에 다음과 같이 기록되어 있다.

A-〈1〉 21년(475) 가을 9월에 고구려 왕 巨璉이 군사 3만 명을 거느리고 와서 수도 漢城을 포위했다. 왕이 싸울 수가 없어 성문을 닫고 있었다. 고구려 사람들이 군사를 네 방면으로 나누어 협공하고, 또한 바람을 이용해서 불을 질러 성문을 태웠다. 백성들 중에는 두려워하여 성 밖으로 나가 항복하려는 자들도 있었다. 상황이 어렵게 되자 왕은 어찌할 바를 모르고, 기병 수십 명을 거느리고 성문을 나가 서쪽으로 도주하려 하였으나 고구려 군사가 추격하여 왕을 죽였다.⁶⁾

A-〈2〉 63년(475) 9월에 왕이 병력 3만을 거느리고 백제를 침략하여 백제 왕도 漢城을 함락하고, 그 왕 扶餘慶을 죽이고 남녀 8천을 포로로 잡아 돌아왔다.⁷⁾

A-〈3〉 17년(474) 가을 7월에 고구려 왕 巨連이 몸소 군사를 거느리고 백제를 공격하였다. 백제왕 慶이 아들 文周를 [신라에] 보내 구원을 요청하였다. 왕이 군사를 내어 구하려 했으나 미처 도착하기도 전에 백제가 이미 [고구려에] 함락되었다. 경 역시 피살되었다.⁸⁾

A-〈4〉 즉위년(475) 文周王- 汶洲로도 쓴다-은 개로왕의 아들이다. 처음에 비유왕이 죽고 개로가 왕위를 계승하였을 때 문주가 그를 보좌하여 지위가 상좌평에 이르렀다. 개로왕 재위 21년에 고구려가 침입하여 한성을 포위하였다. 개로가 성을 막고 굳게 수비하면서 문주를 신라에 보내 구원을 요청하였다. 그는 구원병 1만 명을 얻어 돌아왔다. 고구려 군사는 비록 물러갔으나 성이 파괴되고 왕이 사망하였으므로 문주가 마침내 왕위에 올랐다. 그의 성격은 우유부단하였으나, 또한 백성을 사랑하였으므로 백성들도 그를 사랑하였다.

-
- 6) 『삼국사기』 권25 백제본기3 개로왕 21년조, “二十一年秋九月 麗王巨璉帥兵三萬 來圍王都漢城 王閉城門 不能出戰 麗人分兵爲四道夾攻 又乘風縱火焚燒城門 人心危懼 或有欲出降者 王寤不知所圖 領數十騎出門西走 麗人追而害之.”
- 7) 『삼국사기』 권18 고구려본기6 장수왕 63년조, “九月 王帥兵三萬侵百濟 陷王所都漢城 殺其王扶餘慶 虜男女八千而歸.”
- 8) 『삼국사기』 권3 신라본기3 자비마립간 17년조, “秋七月 高句麗王巨連 親率兵攻百濟 百濟王慶遣子文周求援 王出兵救之 未至百濟已陷 慶亦被害.”

겨울 10월에 熊津으로 도읍을 옮겼다.⁹⁾

한성 함락과 웅진 천도는 워낙 중요한 사건이고 삼국 모두 관여되었으므로 위의 사료처럼 『삼국사기』의 고구려·백제·신라본기에 모두 기록되어 있다. 그 가운데 백제본기의 경우 개로왕 말년과 문주왕 즉위년 기사에 당시의 상황이 비교적 상세히 기록되어 있다. 종합하면, 475년에 장수왕¹⁰⁾이 한성을 함락시키고 개로왕의 목을 베었으며 8천여 명을 잡아 돌아갔다고 한다. 문주가 신라의 구원군을 얻어 왔지만 이미 개로왕은 죽었고 왕도는 폐허가 되었으므로 웅진으로 천도하였다고 한다. 『삼국사기』에 따르면 장수왕의 사주를 받은 도림이 개로왕의 토목공사를 부추졌다고 하며 백제의 사정을 고구려에 수시로 보고하였기 때문에 기습공격이 가능했다고 한다. 예기치 못한 왕도 함락은 지배층은 물론이고 민들에게도 커다란 충격이었을 것이다.

위 사료 A-〈2〉에 따르면 고구려는 더 이상 남진하지 않고 포로만 잡아 돌아갔다고 한다. 그러나 고고학 자료에는 고구려군이 그대로 돌아갔다고 보기 힘든 정황이 남아있다. 몽촌토성에서 고구려 토기와 고구려 마구 등의 유물이 출토되었고 한강 북변의 아차산, 구의동, 흥련봉 일대에서 고구려의 보루가 다수 발굴되었기 때문이다.

첫째, 한성 주변의 고고학 자료이다. 백제의 왕도를 구성하고 있던 왕성은 풍납토성과 몽촌토성인데, 그중 몽촌토성에서는 475년 직후의 고구려 유물이 다량 출토되었다. 현재의 고고학 지식에서 보면 몽촌토성에서 출토된 廣口長頸四耳壺는 전형적인 고구려 토기이다. 1980년대까지만 하더라도 백제 토기로 오인하였지만, 1988년 몽촌토성 발굴조사

9) 『삼국사기』 권25 백제본기4 문주왕 즉위년조, “文周王或作汶洲 蓋鹵王之子也 初毗有王薨 蓋鹵嗣位 文周輔之位至上佐平 蓋鹵在位二十一年 高句麗來侵圍漢城 蓋鹵嬰城自固 使文周救於新羅 得兵一萬迴 麗兵雖退 城破王死遂即位 性柔不斷而亦愛民 百姓愛之 冬十月 移都於熊津.”

10) 광개토왕의 장자인 장수왕은 巨連 혹은 巨璉으로 불렸다. 사서에 따라 한자에 차이가 있는데, 본고에서는 각 사서별 명칭을 그대로 사용하고자 한다.

보고서에서 고구려 토기의 존재를 밝혀내고¹¹⁾ 이어 한강 북변 보루유적 발굴을 통해 475년 이후 고구려군의 동향을 파악할 수 있게 됨에 따라 그렇게 인식할 수 있게 되었다. 몽촌토성 서남지구 고지대에서 발굴된 ‘ㄱ자형 온돌을 갖춘 지상 건물지는 고구려 집안 동대자 건물지에서 보이는 것과 크기와 구조가 유사하여 고구려군에 의해 축조되었을 가능성이 있다. 그 연대는 475년 이후에서 551년 사이로 보아 무리가 없다.¹²⁾ 이를 통해 이 지역에는 일정 기간 동안 고구려군이 거주한 것으로 볼 수 있지만 몽촌토성의 점유기간이 길지 않았던 것 같다.¹³⁾

둘째, 한강 이북의 보루이다. 제일 먼저 발굴된 것은 구의동 보루이다. 발굴당시에는 백제의 殞 시설, 혹은 고분으로 보기도 하였으나 아차산 일대의 보루가 조사되면서 고구려의 관방시설임을 알게 되었다. 한강 유역의 보루는 구릉이나 산 정상부에 입지하며 군사 요새로서의 성격을 갖고 있다. 아차산 보루의 축조과정을 재구성해보면, 정상부의 평탄면을 중심으로 보루의 윤곽을 정하고 가장자리를 따라 목책을 세웠다. 목책과 목책 사이에는 판재를 끼워서 막고 내부에는 필요한 지점에 배수시설을 설치하였다. 보루의 일정한 지점에는 굴토하여 저수시설이나 저장시설을 구축하였다. 이 보루 안에는 고구려 군사가 배치되었을 것이다. 보루 발굴에서 철제 무기뿐만 아니라 농기구도 출토되고 있어 보루에 주둔한 기간이 상당히 길었고 自耕을 통해 군량의 일부를 충당하였을 가능성도 있다.

11) 박순발, 「IV, 토기에 대한 고찰」, 『몽촌토성 동남지구 발굴조사보고』, 서울대학교 박물관, 1988.

12) 김원룡 외, 『몽촌토성-서남지구발굴조사보고』, 서울대학교 박물관, 1989, 31쪽.

13) 임기환, 「고구려·신라의 한강유역 경영과 서울」, 『서울학연구』 18, 서울학연구소, 2002, 22쪽.

〈그림 1〉 한강 이남지역의 고구려 유적 분포



셋째, 475년 이후 축조된 고구려 유적 가운데 가장 남쪽에서 발굴된 자료가 대전 서구 월평동산성과 청원 부용면 남성골산성이다. 〈그림 1〉 먼저, 월평동산성은 두 차례에 걸쳐 발굴되었다. 국립공주박물관과 충남대학교박물관이 공동으로 발굴 조사한 월평동유적에서는 정수장 부지 내에서 산성 축조 이전의 원지표층 아래에서 溝狀遺構, 柱孔, 圓形 竪穴遺構 등이 확인되었다. 이들 유구에서는 심발형토기, 장란형토기, 외반구연호, 고배 등 백제 웅진기 유물이 출토되었다. 그 이후시기에 축조된 저장공, 수혈 등의 유구에서 고구려 토기가 여러 점 출토되었다.¹⁴⁾ 충청문화재연구원이 학술발굴조사를 실시한 월평산성에서는 고대지 남쪽 능선지역 수혈유구와 지표에서 용, 장동호, 동이, 시루, 완, 접시

14) 이한상, 「대전 월평산성 출토 고구려 토기」, 『한국고대사와 고고학』, 학연문화사, 2000, 607쪽.

등 여러 점의 고구려 토기가 출토되었다.¹⁵⁾ 고구려 토기는 백제 토기와는 器形과 色調, 堅度에서 뚜렷하게 구분된다. 그것은 몽촌토성이나 한강 이북의 보루성 출토 토기와 유사하다.¹⁶⁾ 월평동유적에서 발굴된 방어시설 가운데는 목책과 성벽이 결합된 경우가 있고, 木柵②, 성벽②처럼 단독인 경우도 있다. 그 순서는 목책①→목책②→성벽①→성벽②→현 월평동산성으로 추정된다. 조사자는 성벽①을 고구려군이 축조한 것으로 해석했다.¹⁷⁾

월평동산성 출토 고구려 토기는 고구려가 금강을 넘어 대전까지 진출했음을 보여주는 자료이다. 고구려 토기가 대전 월평동까지 옮겨질 수 있었던 것은 고구려가 충주 등 중원지역을 경영하고 있던 장수왕대에 그 세력의 일부가 대전 지역까지 내려왔을 가능성을 보여준다. 특히 성벽①의 축조기법은 평양 대성산 소문봉의 성벽과 매우 유사하므로 고구려군이 대전에 주둔한 것으로 볼 수 있다.¹⁸⁾

청원 남성골에서도 고구려 산성이 발굴되었다. 이 산성은 내·외곽을 이중으로 둘러싼 목책, 내곽으로 이어지는 능선을 차단하는 4개의 호, 내곽 정상부 동문터의 석축벽체를 특징으로 한다. 다수의 수혈과 토기가마, 주거지가 조사되었으며, 집터에서는 고구려식 구들이 확인되었다. 토기류는 기종, 문양요소 등에서 고구려 토기의 특징을 보이고 있는데 용, 장동호, 호, 시루, 동이, 뚜껑, 전달린 토기, 耳杯, 완, 盤 등이 있다.¹⁹⁾ 백제 토기는 고배와 개배편 등 소량에 불과하다. 남성골산성 토기는 기종 구성, 정면수법, 문양 요소, 기형 등 여러 가지 면에서 고구려

15) 충청문화재연구원, 『대전 월평동산성』, 2003.

16) 최종택, 『구의동-토기류에 대한 고찰』, 서울대학교 박물관, 1993; _____, 「한강 유역 고구려 토기 연구」, 『한국고고학보』33, 한국고고학보, 1995; _____, 「고고학 상으로 본 고구려의 한강유역진출과 백제」, 『백제연구』 28, 충남대학교 백제연구소, 1998.

17) 국립공주박물관, 『대전 월평동 유적』, 1999, 209~218쪽.

18) 이한상, 앞의 논문, 2000, 609쪽.

19) 충북대학교 박물관, 『청원 남성골 고구려 유적』, 2004; 충청문화재연구원, 『청원 남성골 고구려유적』, 2008.

토기의 특징을 갖추고 있다. 아울러 금귀걸이 1점이 파손된 채 출토되었는데 전형적인 고구려 양식을 띤다. 평양 만달산 7호 무덤 西室 출토품, 평남 강서군 보림리 6호분 출토품, 평양시 대성구역 안학궁 출토품과 집안 마선구 1호분 출토품, 충북 청원군 강외면 상봉리 출토품과 거의 동일한 유형이다.²⁰⁾ 따라서 이 유적은 고구려군이 축조한 것으로 보는데 이론이 없다. 남성골산성은 5세기 후반에서 6세기 전반에 축조된 것으로 편년되고 있다. 그러한 편년이 가능한 것은 목책 구덩이에서 채취한 숯의 방사성 탄소연대측정값이 5세기 후반 경으로 나오고 있고, 출토된 시루의 양식이 5세기 후반에서 6세기 전반대 토기와 유사하므로 5세기 후반에서 6세기 전반으로 보고 있다.²¹⁾

이처럼 청원 남성골산성은 고구려의 목책성으로 전후 시기의 유구가 없는 단일 시기 유적이며, 대전 월평동산성은 백제 산성이 오랫동안 축조되는 중간 시기에 고구려 산성이 끼어들어 축조된 양상이다.²²⁾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두 산성 모두 백제의 왕도 웅진과 매우 가까운 거리에 위치하고 있어 백제에게는 매우 위협적인 거리까지 고구려가 남진하였음을 보여주는 점이다. 당시 백제는 청주 남동쪽에 위치한 문의 지역에 진출해 있던 신라세력, 청주 남서쪽 부용지역에 진출한 고구려 세력과 대치하고 있는 상황이었다.

다만 두 산성의 축조 시점이 475년 직후인지 혹은 일정 기간이 경과한 이후인지 분명하지 않다. 고구려 문물에 대한 편년 안이 아직 세밀하지 않기 때문이다. 따라서 일단 두 산성 축조의 상한은 475년, 하한은 무령왕대 후반 경으로 볼 수 있다.

20) 이한상, 「고구려의 장신구」, 『한국 고대의 Global pride, 고구려』, 고려대학교 박물관·서울특별시, 2005, 193~198쪽.

21) 차용길, 「충청지역 고구려계 유물 출토 유적에 대한 소고- 남성골 유적을 중심으로」, 『호서지방사연구』, 경인문화사, 2003, 34~37쪽; 충북대학교 박물관, 앞의 책, 2004, 291~297쪽.

22) 노중국, 「5~6세기 고구려와 백제의 관계」, 『북방사논총』 11, 고구려연구재단, 2006, 27~30쪽.

그렇다면 이 당시 고구려가 웅진 가까운 거리까지 남진했음에도 더 이상 내려오지 않았던 그 이유는 무엇이었을까. 이것은 고구려가 처해 있었던 그 당시 상황과 관련된다. 『삼국사기』 고구려 본기 기록을 토대로 그 당시 상황을 유추해 본다면 475년 이후부터 489년까지는 고구려가 백제와 신라에 공격했다는 기록이 없다.²³⁾ 한성 함락 이후 고구려는 魏에 476년 3회, 477년 2회, 479년 2회, 484년 1회, 485년 2회, 486년과 487년 각 1회, 488년 3회 사신을 파견하여 조공하였다.²⁴⁾ 487년에는 宋에 조공하였고,²⁵⁾ 480년과 481년에는 남제에 사신을 파견하였다.²⁶⁾ 이는 고구려에게 있어 南進도 중요하지만 서북방면의 안정도 중요하였다는 것을 짐작해 볼 수 있다. 특히 魏에는 일년에 3회에 사신을 파견할 정도였다. 魏는 고구려가 무시할 수 없는 세력이었다. 고구려를 압도할 만한 국력을 보유하고 있었으며, 遼西를 사이에 두고 대치하고 있었다. 만약 魏와 적대관계가 형성되어 魏가 고구려 주변국과 군사적 동맹 관계를 맺어 공격한다면 고구려는 위기에 처할 수밖에 없었다. 따라서 고구려의 입장에서 서북지역의 상황을 주시할 수밖에 없었다.

5세기 초반 동아시아 정세는 北魏와 反北魏 진영으로 대결하였고 국경을 마주하게 된 고구려로써는 북위와 송의 관계에 민감할 밖에

23) 다만 『삼국사기』 신라본기 소지마립간 3년(481) 3월에는 고구려와 말갈이 북쪽 변경을 침입하여 호명 등 일곱성을 빼앗고 미질부까지 진격해 왔음이 기록되어 있다. 그러나 이는 고구려 단독으로의 공격이 아닌 말갈과의 공격으로 한성 함락 이후 고구려의 관심은 다시 서북방면에 집중되었다고 생각된다.

24) 『삼국사기』 권18 고구려본기6 장수왕 64년조 “春二月 遣使入魏朝貢. 秋七月 遣使入魏朝貢. 九月 遣使入魏朝貢.” 65년조 “春二月 遣使入魏朝貢. 秋九月 遣使入魏朝貢.” 67년조 “春三月 遣使入魏朝貢. 秋九月 遣使入魏朝貢.” 72년조 “冬十月 遣使入魏朝貢.” 73년조 “夏五月 遣使入魏朝貢. 冬十月 遣使入魏朝貢.” 74년조 “夏四月 遣使入魏朝貢.” 75년조 “夏五月 遣使入魏朝貢.” 76년조 “春二月 遣使入魏朝貢. 夏四月 遣使入魏朝貢. 秋閏八月 遣使入魏朝貢.”

25) 『삼국사기』 권18 고구려본기6 장수왕 66년조 “遣使入宋朝貢.”

26) 『삼국사기』 권18 고구려본기6 장수왕 68년조 “夏四月 南齊太祖蕭道成策王爲驃騎大將軍 王遣使餘奴等朝聘南齊.” 69년조 “遣使南齊朝貢.”

없었다.²⁷⁾ 이 때 고구려가 선택한 것은 어느 쪽에도 쏠리지 않는 입장을 견지함으로써 북위로 하여금 고구려를 공격하지 않게 하였고, 송과의 관계는 우호적으로 이끌어 갔다.²⁸⁾ 『송서』의 기록에 의하면 439년 송이 북위를 토벌하고자 할 때 고구려는 말 8백 필을 바쳤다고 한다. 고구려는 중원대륙의 분열상황과 북위가 북으로는 유연, 남으로는 송에 끼어있다는 상황을 인지하고 있었다. 특히 지리적으로 국경을 맞대고 있는 북위의 상황을 잘 이용하였다. 이러한 외교 전략은 고구려 서북지방의 안정을 도모할 수 있게 하였고, 아울러 고구려가 한성을 공략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해 준 것이었다.

그러나 고구려의 서북지방 안정은 그리 긴 시간 유지된 것이 아니었다. 장수왕 50년 무렵부터 신라도 남쪽의 적대세력인 백제와 협력하고 북쪽에서도 물길이 등장하여 북변을 소란케 하였다는 것은 고구려가 군사적으로 대응해야 할 상대가 늘고 있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었다.²⁹⁾ 만약 백제와 북위가 연결되어 북위가 백제에 협조한다면 고구려의 입장에서는 더욱 긴장할 수밖에 없는 처지였다. 더욱이 고구려가 백제의 남진에만 집중하지 않았다고 볼 수 있는 이유 중 하나는 바로 장수왕 67년(479) 북위의 동북변 일대 혼란이다. 시라무렌河 유역과 大興安嶺 산맥 일대에 자리 잡은 庫莫奚와 거란은 고구려와 북위의 접경 일대의 대표적인 세력이다. 그런데 고막해가 시라무렌 북방에 있던 地豆于의 침략을 피하여 북위의 경내로 들어가려 하였고, 거란 역시 1만여 무리가 지두우를 피해 북위 방면으로 가서 북위의 변경을 어지럽게 하였다.³⁰⁾ 이렇게 접경 세력들이 북위의 변경을 혼란하게 한 것은 고구려에 의한 것으로 보고 있다. 이 사건은 한성함락 이후 고구려가 다시 서북지방에 관심을 집중하였음을 보여주는 것이다.

27) 이성제, 『고구려의 서방정책 연구』, 국학자료원, 2004, 70쪽.

28) 이성제, 위의 책, 2004, 95~107쪽.

29) 이성제, 위의 책, 2004, 124~127쪽.

30) 이성제, 위의 책, 2004, 132~133쪽.

『삼국사기』 기록이나 고고학 자료, 그리고 이 당시 고구려의 상황을 종합해 볼 때 한성을 함락시킨 후 고구려군이 이 지역을 영역화하여 통치한 것으로 보기는 어렵다. 고구려의 지방통치방식은 영역지배라기 보다는 점과 선을 연결하여 교두보나 거점을 마련하는 거점지배방식이었다. 경기 북부의 고구려 관방유적은 대부분 보루성이다.³¹⁾ 보루라는 것은 전략적 거점에 설치한 공격형 관방시설로 많은 인원이 장기간 농성을 펼치기에는 규모가 너무 작고, 적에게 포위당했을 때 장기간 버틸 수 있는 보급에 한계가 있다. 즉 고구려의 유적이 보루 위주라는 것은 점유기간이 짧았거나 대규모 성을 구축할 시간이나 여력이 없었음을 보여주는 것으로 점령 지역을 안정적으로 확보하지 못하였음을 의미하는 것이다.³²⁾

이런 점에 주목하여 본다면 고구려가 웅진 근처에까지 남진하였던 것 그리고 그 유적에서 고구려 유물이 출토 된 것은 사실이지만, 이것은 고구려가 직접 지배를 목적으로 한강 유역 전체를 통치하려 한 것이 아니라 <그림 1>에서 보이는 것처럼 전략적 거점을 중심으로 선을 이어 진출입로 확보에 주력하였음을 알 수 있다.

나. 戰線의 형성과 변화

앞에서 살펴본 것처럼 5세기 후반 이후의 어느 시점엔가 고구려는 한강 이남으로 내려와 중원지역을 경영하였으며 일시적이거나 청원과 대전까지 진출하였다. 『삼국사기』에는 당시의 사정을 전하는 기록이 남아 있다.

이들 기사는 크게 차령산맥 이북의 천안~아산 일대, 그리고 금강

31) 심광주·김주홍·정나리, 「한강 이북지역 고구려성의 분포와 특징」, 『연천 호루 고루』, 한국토지공사 토지박물관, 1999, 112~213쪽.

32) 심광주, 「남한 지역의 고구려 유적」, 『고구려발해연구』 12, 고구려 발해학회, 2001, 490쪽.

지류인 미호천 일대에서 벌어진 양국 사이의 각축전 양상을 전해주는 기사군으로 대별할 수 있다.³³⁾ 『삼국사기』의 기록을 그대로 믿는다면, 475년에도 백제가 한강 유역을 영유하고 있었고 예성강 일대에서 고구려와 각축전을 벌여야 한다. 그러나 임진강~한강의 경계지대인 양주, 한강 북안의 아차산 일대 등에서 고구려의 보루성이 대거 확인되었기 때문에³⁴⁾ 두 나라의 국경을 예성강 일대로 보기는 힘들다.

첫째, 아산 ~ 천안선이다. 사료에 등장하는 대두산성과 탕정성의 위치를 어디로 비정할 수 있을까 하는 점이 관건이다.

A-〈5〉 2년(476) 봄 2월에 대두산성을 수축하고 이곳으로 한북의 민가를 옮겼다.³⁵⁾

A-〈6〉 3년(479) 가을 9월에 대두성을 두곡으로 옮겼다.³⁶⁾

웅진기의 백성 사민 기록은 위의 두 기사뿐이다. 사비기로 천도할 때에도 사민 기사가 보이지 않는다.³⁷⁾ 이를 통해 보면 당시의 사민은 왕도 함락과 연결된 것이라 볼 수 있다. 문주왕이 왕도를 옮기고 바로 대두산성을 수축하여 민가를 옮겼다는 것은 한수 이북의 생활여건이 좋지 않았기 때문일 것이다. 즉, 전쟁 때문에 민들이 생존할 수 있는 기반이 없어졌으므로 새로이 기반을 마련해 주고자 대두산성을 수축하여 이주시킨 것이다. A-〈6〉 기사는 대두성의 민을 두곡으로 사민했다는

33) 여호규, 「5세기 후반~6세기 중엽 고구려와 백제의 국경 변천」, 『백제문화』48, 공주대학교 백제문화연구소, 2013, 136쪽.

34) 최종택, 「경기 북부지역의 고구려 방어체계」, 『고구려연구』8, 고구려연구회, 1999; 백중오, 「남한지역의 고구려 성곽」, 『한국 고대의 Global Pride 고구려』, 고려대학교 박물관·서울특별시, 2005; 심광주, 「고구려와 백제의 성곽문화」, 『고구려연구』20, 고구려연구회, 2005; 최종택, 「고고자료를 통해 본 백제 웅진도읍기 한강 유역 영유설 재고」, 『백제연구』47, 충남대학교 백제연구소, 2008.

35) 『삼국사기』 권26 백제본기4 문주왕 2년조, “二年春二月 修葺大豆山城 移漢北民戶.”

36) 『삼국사기』 권26 백제본기4 삼근왕 3년조, “三年秋九月 移大豆城於斗谷.”

37) 한성기의 경우 온조왕 36년(18), 초고왕 45년(210)조에 사민 기사가 보인다.

것이다. 대두성의 위치는 다음의 사료를 통해 유추해 볼 수 있다.

A-〈7〉 27년(9)가을 7월에 대두산성을 쌓았다.³⁸⁾

A-〈8〉 36년(18) 가을 7월에 湯井城을 쌓고, 大豆城 주민의 일부를 이주시켰다.³⁹⁾

A-〈9〉 2년(478) 봄, 좌평 해구가 은솔 연신과 함께 무리를 모아 대두성을 거점으로 반란을 일으켰다. (중략) 연신이 고구려로 달아나자 그의 처자들을 체포하여 웅진 저자거리에서 목을 베었다.⁴⁰⁾

위의 사료 A-〈7〉에 의하면 온조왕 27년에 처음 대두산성을 쌓았다고 하는데 그 위치를 짐작할 수 있는 것은 A-〈8〉·A-〈9〉의 기사이다. 온조왕 36년에 축조한 탕정성의 위치를 온양으로 비정한다면⁴¹⁾ 대두성은 그 부근일 것이다. 주민의 일부를 이주시켰다는 점에서 두 성 사이의 거리가 그다지 멀지 않았음을 짐작할 수 있다. 구체적인 위치는 알 수 없지만 연기⁴²⁾, 아산 수한산성⁴³⁾ 또는 영인산성으로 비정하고 있다.⁴⁴⁾ 탕정성에서 가까운 성은 현재의 아산 일대일 가능성이 보다 높을 것 같다. 그리고 A-〈9〉 기사를 통해 보다 구체적으로 알 수 있는데 대두성은 해씨세력이 관할하였을 것이다. A-〈6〉 기사에서 삼근왕 3년에 대두성을 두곡으로 옮겼다고 했는데, 이는 대두성의 민을 옮김으로써 해씨의 기반을 없애려 한 것으로 볼 수 있다.

38) 『삼국사기』 권23 백제본기1 온조왕 27년조, “二十七年秋七月 築大豆山城.”

39) 『삼국사기』 권23 백제본기 1온조왕 36년조, “三十六年秋七月 築湯井城 分大豆城民戶居之.”

40) 『삼국사기』 권26 백제본기4 삼근왕 2년조, “二年春 佐平解仇與恩率燕信 聚衆據大豆城叛(中略) 燕信奔高句麗 收其妻子 斬於熊津市.”

41) 탕정성은 『삼국사기』 지리지에 기록되어 있는 ‘탕정군’과 관련하여 온양 지역으로 비정하고 있다. 현재 온양 지역에는 20여 곳을 상회하는 백제 산성이 분포하는데, 온양시 읍내동에 위치한 읍내동산성과 그 부속성인 배방산성을 탕정성으로 보고 있다. 유원재, 「백제 탕정성 연구」, 『백제논총』 3, 백제 문화 개발연구원, 1992.

42) 천관우, 「삼한의 국가형성(하)」, 『한국학보』 3, 일지사, 1976, 132쪽.

43) 이기백, 「웅진시대 백제의 귀족세력」, 『백제연구』 9, 충남대학교 백제연구소, 1978.

44) 유원재, 앞의 논문, 1992.

해씨가 반란을 도모하였기에 왕권에 위협적인 요소인 해씨의 기반을 없애 왕권의 안정을 도모하고자 했던 것이다. 대두성의 위치가 고구려군이 위치하고 있는 곳과 멀지 않음을 짐작할 수 있다. A-〈9〉기사에서 연신이 고구려로 달아났다고 하는 것은 근처에 고구려군이 주둔하고 있었을 가능성을 보여준다. 고구려와 접경하고 있던 당시 상황에서 백제왕이 우선적으로 고려했던 것은 민들에게 삶의 기반을 다시 마련해 주는 것이었다. 이는 표면적으로 민들을 배려하는 것이지만 다른 한편으로 고구려의 남진을 저지하고자 변경의 토대를 강화하려는 목적이었을 것이다.

둘째, 공주·증평지역이다. 이 두 지역은 직접적인 접경지역이라기 보다는 왕도 방비 혹은 고구려의 남진을 저지하는데 필요한 거점에 해당한다.

A-〈10〉 12년(490) 가을 7월에 나이가 15세 이상인 북부 사람들을 징발하여 沙峴城과 耳山城 두 성을 쌓았다.⁴⁵⁾

위 사료는 백제가 490년 北部人을 동원해 沙峴城과 耳山城을 축조했다는 것이다. 여기서 사현성은 차령산맥을 넘어 공주로 진입하는 통로상에 위치한 공주 정안면 광정리산성으로 비정되고 있다.⁴⁶⁾ 왕도의 진입로에 축성을 하였다는 것은 그 이전에 왕도가 함락된 경험이 있기 때문에 왕도 방어에 주력하고자 한 것이다. 이산성은 충북 괴산의 이성산성으로 보는 견해⁴⁷⁾가 있다. 한성 함락 이후 백제는 차령산맥 이남으로 후퇴했으며, 고구려 침공에 대비하여 차령이나 그 북방 일대의 방어체계를 강화하기 위하여 성을 쌓은 것으로 생각된다. 성남 판교동, 용인 보정동, 화성 청계동 등지에서 고구려 석실묘가 확인되었는데, 현재의

45) 『삼국사기』 권26 백제본기4 동성왕 12년조, “十二年秋七月 徵北部人年十五歲已上築沙峴耳山二城.”

46) 井上秀雄, 「百濟城郭一覽」, 『朝鮮學報』 104, 朝鮮學會, 1982, 150쪽.

47) 민덕식, 「고구려 도서현성고」, 『사학연구』 36, 한국사학회, 1983.

경부고속도로를 따라 안성-천안으로 향하는 방향과 일치한다. 이는 고구려가 성남-용인-화성-안성 등을 경유해 천안 일대로 진출했을 가능성을 시사한다.⁴⁸⁾

셋째, 금강 지류인 미호천 일대에서 벌어진 전쟁 기사를 검토하여 국경을 추정해 보고자 한다.

A-〈11〉 6년(484) 가을 7월에 고구려가 북쪽 변경을 침입하였으므로 우리 군사가 백제와 함께 毋山城 아래에서 공격하여 크게 깨트렸다.⁴⁹⁾

A-〈12〉 16년(494) 가을 7월에 고구려와 신라가 薩水 벌판에서 싸웠는데 신라가 이기지 못하고 물러나 犬牙城을 방어하고 있다가 고구려 군사에게 포위되었다. 왕이 군사 3천 명을 보내 구원하자 포위가 풀렸다.⁵⁰⁾

A-〈13〉 17년(495) 가을 8월에 고구려가 雉壤城을 포위하자 왕이 신라에 사신을 보내 구원을 요청하였다. 신라왕이 장군 德智에게 명하여 군사를 거느리고 가서 구원하게 하니 고구려 군사가 물러갔다.⁵¹⁾

사료 A-〈11〉에 의하면 모산성은 신라의 북쪽 경계에 위치하며 백제와 힘을 합쳐 고구려군을 격파했다고 한다. 두 나라가 혼인동맹까지 맺은 우호관계에 있었기 때문에 그 징표로 백제가 도와준 것이지만, 한편으로는 고구려의 공격으로부터 이 지역을 방어하는 것이 백제의 안위와 연결되기 때문이다. 따라서 백제는 적극적으로 신라와 함께 고구려군을 저지하고자 한 것이다. 모산성의 위치는 충북 진천의 대모산성으로 비정된다.⁵²⁾ 이 유적에서는 고구려계 항아리 1점이 출토되었는데 이것은

48) 여호규, 앞의 논문, 2013, 139쪽.

49) 『삼국사기』 권3 신라본기4 소지마립간 6년조, “秋七月 高句麗侵北邊 我軍與百濟合擊於毋山城下 大破之.”

50) 『삼국사기』 권26 백제본기4 동성왕 16년조, “十六年秋七月 高句麗與新羅 戰薩水之原 新羅不克退 保犬牙城 高句麗圍之 王遣兵三千 解救圍.”

51) 『삼국사기』 권26 백제본기4 동성왕 17년조, “秋八月 高句麗來圍雉壤城 王遣使新羅 請救 羅王命將軍德智 帥兵救之 麗兵退歸.”

52) 민덕식, 「진천 대모산성의 분석적 연구」, 『한국사연구』 29, 한국사연구회, 1980.

흑색토기로 한강유역에서 발견되는 고구려 토기와 기형이 매우 유사하다고 한다.⁵³⁾

사료 A-〈12〉에 따르면 494년 7월 고구려가 신라군을 薩水之原에서 격파한 다음, 犬牙城으로 퇴각한 신라군을 포위했다고 한다. 고구려와 신라 사이에 전투가 처음 벌어진 薩水는 薩買縣으로 지금의 괴산군 청천면으로 비정된다.⁵⁴⁾ 그리고 犬牙城의 위치는 당시 신라와 고구려 간의 전투가 보은 삼년산성을 기점으로 하여 보은-청원-진천선에서 벌어진 점을 고려하면 薩水之原으로 비정되는 괴산 청천보다 남쪽에 위치한 보은의 북부지역으로 추정할 수도 있다.⁵⁵⁾

사료 A-〈13〉은 A-〈12〉에 기록된 견아성 전투의 이듬해에 벌어진 전투이다. 이 기록에 보이는 치양성은 『삼국사기』 백제본기 근초고왕 24년(369)조에 근거할 때 황해도 白川과 동일한 곳으로 볼 수도 있으나 당시의 전황을 고려하면 충북 괴산일대로 추정할 수 있다.⁵⁶⁾ 고구려가 5세기 후반 충주지역을 비롯한 남한강 본류 일대를 확고하게 장악한 다음, 남한강 지류인 달천을 따라 괴산-보은 방면으로 진출하며 신라를 압박하던 상황을 반영하는 것 같다. 이처럼 고구려가 남한강 본류를 장악한 다음 지류인 달천 상류방면으로 진출했다면, 남한강-금강의 분수령을 넘어 미호천 방면으로 진출했을 가능성도 상정해볼 수 있다.⁵⁷⁾

고구려군이 금강지류인 미호천 일대까지 진출해 있었음은 다음의 사료를 통해서도 짐작해 볼 수 있다.

C-〈1〉 이 해에 紀生磐宿禰가 임나를 점거하고 고구려와 교통하였으며, 서쪽에서 장차 삼한의 왕 노릇을 하려고 관부를 정비하고 스스로 神聖이라고

53) 충북대학교 호서문화연구소, 『진천 대모산성 지표조사보고서』, 1996.

54) 이병도, 『국역 삼국사기(下)』, 을유문화사, 1977, 400쪽.

55) 양기석, 「신라의 청주진출」, 『신라 서원소경 연구』, 서경, 2001, 35쪽.

56) 475년 이후 황해도 배천지역 주민들이 전란을 피해 괴산지역에 이주하면서 동일한 지명이 나타난 것일 수도 있다. 양기석, 「475년 위례성 함락 직후 고구려와 백제의 국경선」, 『한국 고대 사국의 국경선』, 서경문화사, 2008, 84쪽.

57) 여호규, 앞의 논문, 2013, 141~142쪽.

칭하였다. 임나의 左魯·那奇他甲背 등의 계책을 써서 백제의 適莫爾解를 爾林에서 죽였다.(이림은 고구려의 땅이다) 大山城을 쌓아 동쪽길을 막고 지켰다. 군량을 운반하는 나무를 끊어 [백제의] 군대가 굶주려 고생하도록 하였다. 백제왕이 크게 노하여 領軍 古爾解·內頭 莫古解 등을 보내어 무기를 갖추어 대산성에 나아가 공격하게 하였다. 이에 기생반숙례는 군대를 내보내 맞아쳤는데, 담력이 더욱 왕성하여 향하는 곳마다 모두 깨뜨렸다.⁵⁸⁾

위 사료에서 爾林은 고구려·백제의 접경지대에 위치하므로 이림의 위치 추정을 통해 麗濟의 국경을 비정해 볼 수 있다. 위 기록은 487년경의 일인데, 이보다 늦은 550년경의 사료에도 이림이 등장한다. 백제가 550년 도살성을 공격하기 직전에 爾林에서 고구려인을 포로로 잡았다는 『일본서기』의 기록이다. 그렇다면 爾林은 도살성(증평 도안)에 인접해 있었을 가능성이 있다. 爾林 부근에는 군량을 운반하는 나무터가 있었고, 가야에 웅거한 紀生磐宿禰가 爾林에서 百濟의 適莫爾解를 살해했다고 한다. 즉, 爾林은 5세기 후반경 가야와 백제를 이어주던 금강 연안의 水路上에 위치했으며, 구체적으로는 미호천 본류 연안인 청원 일대일 가능성이 있다. 청원 부용면 일대에는 고구려 유적과 함께 백제와 신라 유적이 함께 발견되는 곳이다.⁵⁹⁾

이처럼 백제와 고구려의 戰線은 다음과 같이 정리해 볼 수 있다. 고구려가 한성을 함락시킨 후, 그 주력은 다시 서북방의 안전을 위해 회군했다. 고구려에게 있어 서북방은 국가의 안위와 관련된 주요한 지역이었다. 서북방 국경선의 안정을 위해 고구려는 북위 및 물길과 긴장관계를 완화하면서 다방면으로 외교를 전개하였다. 그러나 일부는 남한강 지류인 달천 상류를 따라 괴산 - 보은 방면으로 진격해 신라를 압박하는 한편, 남한강-금강 분수령을 넘어 미호천 방면으로 진격해

58) 『일본서기』 권15 현종기 3년조, “是歲 紀生磐宿禰 跨據任那 交通高麗 將西王三韓 整脩宮府 自稱神聖 用任那左魯那奇他甲背等計 殺百濟適莫爾解於爾林(爾林高麗地也) 築帶山城距守東道 斷運糧津 令軍飢困 百濟王大怒遣領軍古爾解內頭莫古解等 率衆趣于帶山攻 於是 生磐宿進軍逆擊 膽氣益壯 所向皆破.”

59) 양기석, 앞의 논문, 2008, 86쪽.

백제에게 위협을 가했던 것으로 파악된다. 청원 남성골산성이나 대전 월평동산성은 고구려가 일시적이거나 미호천 나아가 금강 본류를 뛰어 넘어 서남쪽으로 깊숙이 들어왔음을 보여준다. 때문에 웅진 천도 후 백제는 고구려의 남진을 저지하고 왕도를 안전하게 지키기 위해 여러 가지 방법을 강구했을 것이다.

청원 남성골산성이나 대전 월평동산성의 지리적 위치와 성의 구조로 보아 오랫동안 주둔한 것으로 보기는 쉽지 않다. 더욱이 그 위치가 백제와 신라의 협공에 취약한 곳이라는 점도 고려할 필요가 있다. 시기적으로 보면 위 두 성은 480년대 이전에 운용되었을 공산이 크다. 480년 중후반 이후가 되면 그 상황이 달라진다. 이 무렵의 백제는 고구려의 남진을 방어하는데 급급했던 상황에서 어느 정도 벗어난 것 같다. 성을 쌓아 방비를 견고히 하는 한편 주변국과의 우호적인 외교관계를 맺어 공동으로 고구려의 공격에 대응하게 된다.

3. 築城과 외교를 통한 대응

가. 축성의 토대와 성과

고구려군이 금강 주변까지 남진해 있는 상황은 백제 왕실과 조정에게는 큰 압박으로 다가왔을 것이다. 웅진기 백제의 여러 왕들은 왕도가 함락되는 것을 막아야만 했으며, 그것을 위해 선택한 것이 축성을 통해 왕도 방어체계를 구축하는 일이었다. 그러나 축성은 쉽게 시행할 수 있는 일이 아니었다. 성을 쌓으려면 1차적으로 상당수의 장정을 지속적으로 동원할 수 있어야 하며 그들에게 의복, 식사, 숙소 등 기본적인 물자와 시설을 제공해 주지 않으면 안 된다. 뿐만 아니라 성채의 견고함을 얻기 위해서는 전문 축성 기술자들이 집단적으로 투입되어야만 한다.

그런데 동성왕대에 대규모 축성 사업이 연이어 수행되었다는 점은 역으로 그 시기에 수취체계가 상당 부분 복구되었고 백제 사회가 어느 정도 안정화되고 있었음을 상징적으로 보여준다.

웅진 천도 후 백제는 한강 유역의 인적·물적 기반을 포기할 수밖에 없었다. 그 중 가장 큰 손실은 철광산, 제철공방, 탄요 등으로 구성된 제철체계의 붕괴였다. 한강 유역에서 제철 작업이 개시된 것은 3세기경의 일이며, 낙랑 지역에서 남하한 제철장인들이 경기도 서남부지역에 정착하여 철 제련에 종사하면서 주변지역에 그들이 가지고 있었던 선진적 제철기술을 전파시켰을 가능성이 있다. 화성기안리 유적이 그것을 시사해준다.⁶⁰⁾ 기안리유적에는 제련작업을 하던 공방과 단조작업을 수행하던 공방이 모두 발굴되었다. 이 유적을 통해 백제가 이미 炒鋼技術을 가지고 그것을 기반으로 강철제 무기를 개발할 수 있었음을 알 수 있다.⁶¹⁾

또한 백제에서 제련작업이 이루어진 곳으로 진천 석장리, 청원 연제리, 충주 칠금동, 나주 복암리유적이 있다.⁶²⁾ 복암리를 제외하면 모두 한성기 유적이다. 진천 석장리유적에서는 제련로와 함께 단야로가 검출됨에 따라 제련에서 단야까지의 전 공정을 확인할 수 있다. 그리고 청원 연제리에서도 제련로가 발견되었다. 충주 칠금동의 제련 유적에서는 철을 대량으로 생산하던 製鍊爐가 발굴되었다.⁶³⁾

청원 연제리 유적은 천안-청주, 진천-청주의 교통로가 만나는 지점에 위치하고 있다.⁶⁴⁾ 백제 제련 유적의 입지를 보면 목탄의 생산이 보다 원활한 산간 지역보다 낮은 구릉 지역이 선호되었는데, 정치·

60) 이남규, 「생산활동와 교역」, 『백제의 사회경제와 과학기술』, 충청남도 역사문화연구원, 2007, 282쪽.

61) 이남규, 「백제 철기의 생산과 유통에 대한 시론」, 『백제 생산기술의 발달과 유통 체계 확대의 정치사회적 함의』, 학연문화사, 2008, 192쪽.

62) 한국문화재조사연구기관협회, 『한반도의 제철유적』, 2012.

63) 이남규, 앞의 책, 2008, 192쪽.

64) 이한상, 앞의 책, 2009, 119쪽.

사회적으로 관리감독이 용이하고 교통이 편리한 위치를 선호한 결과이다. 특히 충주 칠금동유적은 남한강변 탄금대 토성 옆에 위치하고 있어 제 조건을 두루 갖춘 適所이다.⁶⁵⁾

한성기 백제의 제철 시설이 여러 곳에 존재했음은 제철 유구와 탄요의 조합양상으로 추측해 볼 수 있는데 철 제작 공정과 관련한 시설이 몇 개소에 일정한 조합을 이루며 분산되어 있다. 지방 소재 제철시설에서 산출된 철 소재가 중앙으로 보내졌을 것이다. 이를 공급으로 볼 수도 있고 중앙에서 파견된 인물이 생산의 모든 과정을 주관했을 가능성도 있다. 어느 경우라도 철 소재는 중앙에 집적되었다가 지방으로 분배되었을 것이다.⁶⁶⁾ 한성기 백제의 정치적 여건에서 본다면 지방 세력을 지배에 적극적으로 활용했을 것이고, 대규모 노동력이 필요한 제철작업을 수행할 때는 더욱 그러했을 것이다. 백제사회를 지탱해주던 한 축이 한성 함락을 계기로 무너진 것이다.

두 번째로 지적할 수 있는 것은 한성 함락 이후 금강 이북의 대부분 지역을 상실하였기 때문에 그곳을 기반으로 하던 수취체계가 붕괴될 수밖에 없었다는 점이다. 전술한 제철 체계의 붕괴는 고고학 발굴 자료가 증가되어 어느 정도의 추론이 가능하지만, 다른 부분은 자료의 부족 때문에 구체적으로 검토하기가 어렵다. 다만, 연기 나성리유적과 광주동림동유적 발굴조사의 성과는 5세기대 백제의 수취양상을 이해하는데 귀중한 정보를 제공해 준다.

연기 나성리 유적의 경우 유적 중심에 남북으로 개설된 도로를 만들고 그 좌우에 넓은 도랑을 돌려 구획한 거대 저택과 창고로 보이는 고상식 건물들이 세트를 이루며 집중 분포되어 있다. 나성리는 수혈 주거지가 매우 적은 것에 비해 저장·수공업 생산시설과 방어시설을 갖추고 있는 것이 특징적이다. 특히 대지 구획구가 있는 수장 거관·중·소형 대지에는

65) 이남규, 앞의 논문, 2007, 287쪽.

66) 이한상, 앞의 책, 2009, 122~123쪽.

고상 창고로 추정되는 저장시설이 달려 있다.⁶⁷⁾ 이 유적은 금강 북안에 인접하고 있어 이곳에 집적한 물산을 금강 水運으로 왕성까지 운반하였던 것으로 추정된다. 유적의 연대는 한성기 말까지 소급되며, 웅진기에 도 그 기능이 일부 유지된 것으로 보인다. 조사된 자료⁶⁸⁾에 근거해 볼 때 거점 지역의 존재가 구체가 되었으며⁶⁹⁾ 백제의 수취물산을 집적하는 중간 집하시설로 보아도 좋을 것 같다.

영산강유역의 광주 동림동, 하남동, 산정동, 선암동, 월전유적은 지상식 혹은 고상식 창고군을 갖춘 취락이다. 유사한 구조를 지닌 일본 大阪 法圓坂遺蹟의 경우 5세기 河內政權의 창고군으로 해석⁷⁰⁾되고 있어 영산강 유역 창고군의 성격을 이해하는데 참고할 수 있다. 영산강 유역 창고군의 연대는 5세기 후반의 늦은 시기에 해당한다. 최근의 연구에 의하면, 영산강 상류에서 새롭게 확인되는 5세기 후반경의 창고군은 웅진기 백제 중앙이 연기 나성리유적처럼 영산강 유역에서 수취한 물산을 집적하는 공간일 것으로 해석하고 있어 주목된다⁷¹⁾.

67) 박순발, 「백제 한성기의 지방도시」, 『백제의 왕권은 어떻게 강화되었나-한성 백제의 중앙과 지방』 갯점 백제사 집중토론 학술회의 IV, 한성 박물관 백제학 연구소, 2014, 108~111쪽. 박순발은 나성리 유적은 일반 취락에 비해 월등히 많은 수의 고상 저장시설이 구비되어 있는 것은 이 지역이 정치적·경제적 관계망을 형성하고 있는 취락들로부터 농업생산물을 수취하고 수공업 생산품을 분배하는 기능을 했을 것으로 보고 있다. 따라서 나성리 취락은 경제적 관계망의 핵심으로서 市와 함께 공권력의 보루인 城을 구비하고 있는 백제의 지방 지배 중심지로 파악하였다.

68) 이인학, 「행정중심복합도시 중앙녹지 공간 및 생활권 2-4구역 건설예정지역내 연기 나성리유적」, 『제35회 한국고고학 전국대회 발표문』, 한국 고고학회, 2011; 이홍중·조보람, 「한성 백제기 금강유역 거점지역의 지형 조건」, 『백제연구』 56, 충남대학교 백제연구소, 2012; 이홍중, 「초기백제 교역거점도시의 지역경관」, 『한일취락연구』, 2013, 한일취락연구회; _____, 「세종시 충적지 발굴조사 성과와 과제」, 『세종시, 어제, 오늘 그리고 내일』, 호서고고학회, 2013.

69) 이홍중·조보람, 앞의 논문, 2012.

70) 권오영, 「백제의 생산기술과 유통체계 이해를 위하여」, 『백제 생산기술의 발달과 유통체계 확대의 정치사회적 함의』, 학연문화사, 2008.

71) 이영철, 「백제 수취취락의 일례」, 『현장고고』 1, 대한문화유산연구센터, 2009; _____, 「거점 취락의 변이를 통해 본 영산강유역의 고대사회」, 『한일취락연구』, 한일취락연구회, 2013.

향후 조사가 더 진전된다면 위와 같은 유적이 한강 유역이나 미호천 유역 등 한성기 백제의 지방 주요 거점에서 발굴될 가능성이 있다. 웅진기 백제가 영산강 유역을 새로운 수취원으로 확보하기 위하여 노력하였고, 동성왕대 이르면 가시적 성과를 달성하였던 것으로 볼 수 있다.

이처럼 동성왕 재위 연간인 5세기말 경이 되면 수취체계의 복구를 이루어 낸 것 같다. 금강 유역과 호남지역이 그 대상이 되었을 것임은 자명하다. 동성왕대 이후 영산강유역에 관심을 가지고 순행까지 한 이유를 추정해 볼 수 있는 대목이다. 그것이 토대가 되어 고구려의 남진을 저지하기 위한 축성사업을 벌이게 된다.⁷²⁾

『삼국사기』에는 온조왕대부터 축성기사가 보이기 시작하여 전지왕대의 사구성 축성까지 이어진다. 그 후 축성 기사가 보이지 않다가 동성왕 8년에 다시 등장하며 여러 성을 연이어 쌓는다. 그것은 국가의 지배체제가 어느 정도 복구되었고 왕권이 회복되었음을 것을 의미한다. 축성은 많은 노동력이 동원되어야만 가능하다. 백제의 축성과 관련하여 어느 정도의 노동력이 투입되었는지는 알 수 없다. 다만 『삼국사기』 기록에 의하면 그 대상자의 나이가 온조왕대부터 15세 이상을 징발하였다는 것이다. 그리고 직접적으로 축성에 동원된 노동력을 추정할 수는 없지만 근초고왕 전투에 참가한 병력을 기준으로 인구를 추정한 연구에 의하면 이때 3만 명의 병력이 참가되었음을 기준으로 할 때 최소 60만명, 100성, 1200촌 정도였다는 것이다.⁷³⁾ 신라의 경우 삼년산성을 축조하기 위해 一善郡에서 丁夫 3000천명을 징발하였다고 한다. 대체로 백제의 산성이 신라의 산성에 비해 작고 광개토왕이 58성을 백제로 빼앗았다는 광개토대왕비문의 기록을 토대로 추정해 볼 때 4세기 후반경에 이미 백제는 동시에 10개 이상의 성을 축조할 수 있을 정도의 역역 체제가 갖추어져 있었다.⁷⁴⁾

72) 다수의 인력 동원은 왕권의 절대화에 기여할 수 있었는데, 이것은 전제정치가 관계 수리 사업을 통해 다수의 인원을 동원한 것에서 비롯된 것과 같은 맥락에서 이해할 수 있다. 신형식, 『백제의 대외관계』, 주류성, 2005, 62쪽.

73) 강종원, 『4세기 백제사 연구』, 서경문화사, 2002, 91쪽.

동성왕대에 축성기사가 집중된 것은 고구려의 남진 위협 때문에 방어 체계를 구축하는 것이 무엇보다 시급하였기 때문이다. 천도 후 축성된 성들은 변경으로부터 왕도에 이르는 거리가 짧았기 때문에 산성을 횡으로 배치하여 고구려를 방어하기 위한 지점에 성을 쌓았다.⁷⁵⁾ 즉, 백제는 고구려를 방어하기 위한 방어선을 구축하기 위해 축성 사업을 적극적으로 시행 하였다. 동성왕대 축성 기록을 검토해 보면 다음과 같다.

A-〈14〉 8년(486) 7월에 宮室을 重修하고 牛頭城을 쌓았다.⁷⁶⁾

A-〈15〉 12년(490) 7월에 北部 사람 15세 이상을 징발하여 沙峴과 耳山의 두 城을 쌓았다.⁷⁷⁾

A-〈16〉 20년(498) 7월에 沙井城을 쌓고 扞率 毗陀로 鎮戍케 하였다.⁷⁸⁾

A-〈17〉 23년(501) 8월에 加林城을 쌓고 衛士佐平 昔加로 하여금 鎮戍케 하였다.⁷⁹⁾

위 사료 가운데 A-〈14〉는 동성왕대의 첫 축성기록이다. 우두성의 위치는 분명하지 않으나 서천 건지산성으로 비정한 견해가 있다.⁸⁰⁾ 사료 A-〈15〉에 등장하는 사현성의 위치에 대해서는 공주 광정리 산성으로 보는 견해⁸¹⁾가 설득력이 있는 것으로 받아들여지고 있다. 이

74) 서영일, 「한성백제시대 석축산성의 축조 배경연구」, 『문화사학』 23, 한국문화사학회, 2005, 120~121쪽.

75) 서영일, 「한성백제시대 석축산성의 축조 배경연구」, 『문화사학』 23, 한국문화사학회, 2005, 110쪽. 반면 신라 산성의 경우는 웅진기 백제와 달리 중심의 길이가 길어서 방어체계 역시 중심방어 위주로 구성되었으며 산성을 축조할 지점도 백제에 비해 선택의 폭이 넓었다고 한다.

76) 『삼국사기』 권26 백제본기4 동성왕 8년조, “八年秋七月 重修宮室 築牛頭城.”

77) 『삼국사기』 권26 백제본기4 동성왕 12년조, “十二年秋七月 徵北部人年十五歲已上 築沙峴耳山二城.”

78) 『삼국사기』 권26 백제본기4 동성왕 20년조, “二十年秋七月 築沙井城 以扞率毗陀鎮之.”

79) 『삼국사기』 권26 백제본기4 동성왕 23년조, “二十三年八月 築加林城 以衛士佐平昔加鎮之.”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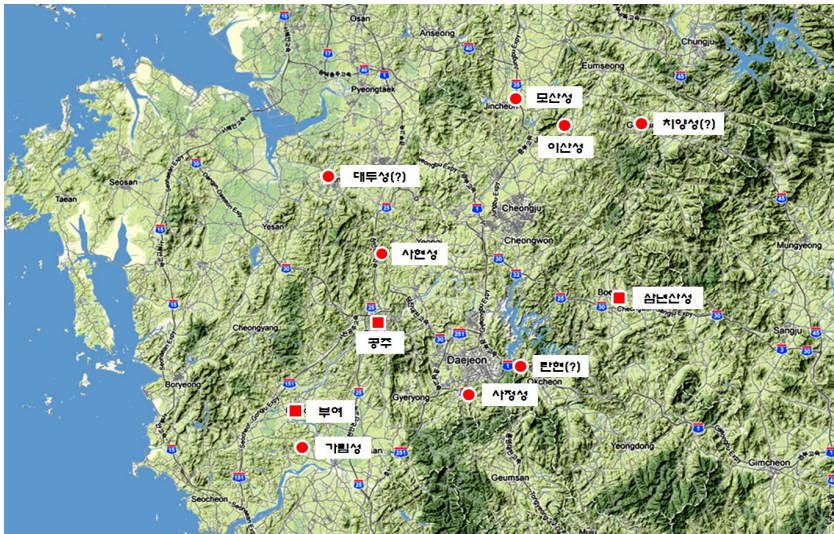
80)金正浩, 『大東地志』 권5, 한산 성지조, 1976.

81) 井上秀雄, 「百濟城郭一覽」, 『朝鮮學報』 104, 朝鮮學會, 1982, 150쪽.

산성은 공주와 천안의 경계를 이루는 차령산맥에 인접해 있어 왕도 방어를 목적으로 쌓은 것으로 볼 수 있다.

耳山城의 위치에 대하여 괴산의 이성산성으로 비정한 견해⁸²⁾가 제기되어 있다. 사료 A-〈16〉에 기록된 사정성의 위치에 대하여 대전 사정동 산성으로 비정한 연구⁸³⁾가 있다. 사료 A-〈17〉에 등장하는 가림성을 부여 성흥산성으로 보는 데는 대부분의 연구자들이 동의한다.⁸⁴⁾ 이외에 축성기록은 아니지만, 동성왕대 기록에 등장하는 백제성으로 모산성과 치양성이 있다. 기왕에 축조되어 있던 성에 웅거하여 전쟁을 수행한 기록이다. 이중 모산성을 진천 대모산성으로⁸⁵⁾, 치양성을 괴산 일대로 비정한 연구⁸⁶⁾가 있다.

〈그림 2〉 『삼국사기』에 기록된 웅진기 백제의 성곽 위치도(삼년산성은 신라성)



82) 민덕식, 앞의 논문, 1983.

83) 성주탁, 「대전지역고대성지 연구」, 『백제연구』 5, 충남대학교 백제연구소, 1974, 116쪽.

84) 金正浩, 앞의 책, 임천 성지조, 1976; 이병도, 앞의 책, 1977, 401쪽.

85) 충북대학교 호서문화연구소, 앞의 책, 1996.

86) 양기석, 「475년 위례성 함락 직후 고구려와 백제의 국경선」, 『한국 고대 사국 국경선』, 서경문화사, 2008.

〈그림 2〉에 표기한 것처럼 동성왕대를 중심으로 한 웅진기 백제의 선은 북으로 아산-천안-진천-증평-괴산을 잇는 선에, 남쪽과 동쪽으로는 부여-대전-옥천을 잇는 선에 분포한다. 왕도 웅진을 등글게 감싸며 배치되어 있다.⁸⁷⁾ 특히 북쪽의 경우 475년 직후에는 앞에서 살펴본 것처럼 고구려군이 남진하여 백제를 압박하였던 상황이었으나 동성왕대에 이르러 북으로 영역을 일정 부분 회복한 양상이다. 이후 무령왕 재위 후반이 되면 북계는 더욱 올라가 한강유역에 다다르게 된다. 〈표 1〉에 제시한 장령성, 고목성, 쌍현성의 상세 위치는 不明이지만 고구려의 부용세력인 말갈과의 전투기사에서 등장하는 것으로 보아 〈그림 2〉에 제시한 성들보다는 북쪽으로 비정할 필요가 있다.

그 밖에 백제의 한성기인 470년에 신라는 이미 보은에 삼년산성을 축성하였고⁸⁸⁾ 소백산맥을 넘어 청원·대전 등 백제 접경지까지 영역을 확장한 상태였다. 웅진 천도 직후 신라의 북진이 백제에 위협이 되었겠으나 두 나라 사이의 동맹 관계 때문에 별다른 방책을 세우기도 어려웠던 것 같다. 일단은 현상 유지를 통해 고구려의 남진을 함께 저지하고자 한 것 같다.⁸⁹⁾

87) 서정석, 『백제의 성곽-웅진-사비시대를 중심으로』, 학연문화사, 2002, 99~101쪽.

88) 『삼국사기』권3 신라본기 3 자비마립간 13년조, “十三年築三年山城.”

89) 양기석, 「웅진도읍기초기의 정치정세」, 『웅진도읍기의 백제』, 충청남도역사문화연구원, 2007, 50~51쪽. 삼년산성의 성격에 대해서는 신라가 백제를 견제하기 위해 쌓은 거점성으로 보고 있다. 그러나 이 당시 신라는 고구려의 통제에서 벗어나고자 노력하였으므로 고구려의 남진에 대비하기 위한 목적이 더 강하지 않았을까 생각한다.

〈표 1〉 웅진기 백제의 성곽 위치 비정 논의

구 분	A설	B설	C설	D설	비고
대두성(476)	아산(이기백, 유원재)	연기 (천관우)			수리
모산성(484)	진천 대모산성(총복대)				활용
우두성(486)	서천 건지산성(김정호)				축성
사현성(490)	공주 광정리 산성(井上秀雄)				축성
이산성(490)	증평 이성산성(민덕식)				축성
치양성(495)	괴산(양기석)				활용
사정성(498)	대전 사정동산성 (성주탁)				축성
탄현(501)	부여 외곽(안정복 외)	보은~옥천 (津田左右吉)	대전 동쪽 (池內宏 外)	옥천~대전 (서정석)	축성-柵城
가림성(501)	부여 성흥산성(이병도 외)				축성
장령성(507)	미상				축성
고목성 外(507)	미상				축성-柵城
쌍현성(523)	미상				축성

이상에서 살펴본 것처럼 동성왕대에 많은 수의 성을 쌓을 수 있었던 것은 웅진 천도 후 국가의 지배체제를 상당 부분 재건하였기에 가능하였을 것이다. 대규모 축성을 하기 위해서는 많은 인원을 동원해야 하며 그러기 위해서는 역역동원체계가 정비되어 있어야 한다. 즉, 동성왕대의 축성 목적은 고구려의 남진을 저지하고 왕도를 안전하게 방어하는 것이고 그것은 동성왕의 왕권이 상당 부분 회복되었음을 보여준 것이다.

축성 사업에는 막대한 재원이 소요된다. 특히 변경지역에 거주하는 주민을 역역에 동원해야 하며 석재를 치석하여 견고히 쌓아 올리려면 축성체계가 갖추어지지 않으면 안 된다. 사서의 기록에 상당수의 축성

기사에 보이는 것은 역으로 수취체계가 정상적으로 작동하고 있음을 보여주며 고고학 조사에서 확인되는 수취취락, 산성의 존재를 통해 사서의 기록에 신빙성을 부여 해 줄 수 있겠다. 그렇지만 동성왕대를 거쳐 무령왕 치세가 되어야 한성기 후반의 상황을 회복하였을 것이다.

나. 濟羅同盟의 강화

축성사업과 더불어 고구려의 남진을 저지하기 위해 동성왕이 선택한 것은 제라동맹의 강화였다. 이미 한성이 함락된 상황에서 신라와의 우호는 반드시 필요한 일이었다. 450년대 이래 고구려와 쟁패를 거듭하던 백제의 입장 뿐 아니라 신라도 백제와의 우호가 필요했기 때문에 두 나라는 동맹을 유지할 수 있었던 것이다. 두 나라의 우호관계는 다음의 기사에서 알 수 있다.

A-〈18〉 7년(433) 가을 7월 신라에 사신을 보내 화친을 요청하였다.⁹⁰⁾

A-〈19〉 8년(434) 봄 2월 신라에 사신을 파견하여 좋은 말 두 필을 보냈다.⁹¹⁾

A-〈20〉 가을 9월에 다시 흰 매를 보냈다.⁹²⁾

A-〈21〉 겨울 10월에 신라에서 좋은 금과 明珠를 답례로 보내 왔다.⁹³⁾

사료 A-〈18〉 ~ 〈21〉에 따르면, 백제는 비유왕 7년인 433년에 먼저 신라에 사신을 보내 화친을 요청하였고, 다시 그 이듬해에는 두 차례에 걸쳐 좋은 말과 매를 예물로 보냈다. 신라 역시 답례품을 보내면서 두 나라 사이의 우호관계가 지속되었다. 5세기 초 백제와 고구려는 계속 공방전을 벌였고 신라는 고구려와 우호적인 분위기를 유지하고 있었다. 그러나 신라에서는 고구려를 등에 업은 놀지가 실성왕을 시해하고 왕위에

90) 『삼국사기』권25 백제본기3 비유왕 7년조, “秋七月 遣使入新羅 請和.”

91) 『삼국사기』권25 백제본기3 비유왕 8년조, “八年春二月 遣使新羅 送良馬二匹.”

92) 『삼국사기』권25 백제본기3 비유왕 8년조, “秋九月 又送白鷹.”

93) 『삼국사기』권25 백제본기3 비유왕 8년조, “冬十月 新羅報聘以良金明珠.”

오르면서 고구려의 영향력은 더욱 강해졌다.⁹⁴⁾ 눌지왕은 이미 왕위 계승에서 고구려의 영향을 받았다는 한계를 가지고 있었고 이는 부담으로 작용할 수밖에 없었다. 이에 눌지왕은 고구려로부터 벗어나고자 하였다.

이런 상황에서 백제가 신라에게 화친을 요청한 것이고 신라 역시 탈고구려화를 이루기 위해 백제의 도움이 필요했다. 두 나라의 이해관계가 일치할 수 있었던 또 하나의 이유는 장수왕의 평양천도였다. 장수왕의 평양천도는 백제와 신라 두 나라 모두에게 위협적인 것이었다. 따라서 두 나라는 급격히 가까워진다.

신라와 고구려의 관계는 눌지왕 3년(454) 신라가 고구려의 변방 장수를 살해하면서 달라졌다. 이후 소지왕 3년(481년)에 이르면 각축전이 전개 된다. 그 사이에 신라는 많은 성을 쌓았다. 자비왕 11년(468)에 泥河에 축성한 것을 시작으로 계속해서 성을 쌓았다.⁹⁵⁾ 자비왕 13년(470)부터 17년(474)까지 집중적으로 축성한 것은 고구려를 방어하기 위한 것으로, 이 때 축성한 지역은 추풍령로와 동해안 방면에 집중된다. 이 때 쌓은 성들의 위치는 삼년산성(충북 보은)·일모성(충북 문의)·답달성(경북 상주)처럼 위치를 비정할 수 있는 것도 있고 여전히 미상인 것들도 있지만 후보로 언급되는 지역들을 참고할 때 주로 신라 서북변의 소백산맥 일대에 축성되었을 가능성이 있다.⁹⁶⁾ 즉, 신라가 삼년산성 및 기타 성들을 축성한 것은 고구려를 방어하기 위한 것이었다. 한편 이 무렵 고구려의 공격 대상은 백제로 바뀐다. 475년 왕도를 함락시켰고 이후 계속적으로 대립하게 된다.

94) 장창은, 『신라 상고기 정치변동과 고구려 관계』, 신서원, 2008, 103쪽.

95) 『삼국사기』 권3 신라본기3 자비마립간 17년조, “十七年 築一牟沙尸廣石沓達仇禮坐羅等城.”

96) 장창은, 앞의 책, 2008, 159~160쪽.

〈표 2〉 웅진·사비기 백제와 고구려의 관계

왕	연대	내 용	결과	비고
동성왕	17년(495) 8월	고구려가 백제를 침입	백제 승리	신라군의 지원을 받음
무령왕	1년(501) 11월	백제가 고구려의 수곡성을 습격		
	2년(502) 11월	백제가 고구려의 변경을 침략		
	7년(507) 10월	고구려·말갈이 (백제의) 횡악을 침입	백제 승리	
	12년(512) 9월	고구려가 (백제의) 가불성·원산성을 침입	백제 승리	
성왕	1년(523) 8월	고구려가 백제의 패수 침입	백제 승리	
	7년(529) 10월	고구려가 백제의 혈성 함락		
	7년(529) 10월	백제가 오곡성에서 고구려와 전투	백제 패배	(백제)전사자 2000명
	18년(540) 9월	백제가 고구려의 우산성 공격	백제 패배	
	26년(548) 1월	고구려가 백제의 독산성 공격	백제 승리	신라군 3000명의 지원을 받음
	28년(550) 1월	백제가 고구려의 도살성 공취	백제 승리	
	28년(550) 1월	고구려가 백제의 금현성 포위		

위의 표에서 주목되는 점은 동성왕대에 고구려의 침입이 1회에 그쳤다는 것이다. 앞에서 제시한 A-〈13〉의 사료에서 볼 수 있듯이 동성왕 17년인 495년에 고구려가 치양성을 공격한 것이다.

이 기록은 천도 후 처음 보이는 고구려 공격 기사이다. 고구려는 한성을 함락시킨 475년 이후 한 동안 백제를 공격하지 않았다. 이는 고구려가 한성을 함락시키기는 했지만 그 당시 고구려는 서북방의 안전도 중요하였고, 적대관계가 되어버린 신라와의 관계도 있었기 때문에 백제를 공격하지 않았던 것 같다. 이것은 동성왕에게 유리한 조건이었다.

백제와 신라의 공조관계가 직접적으로 보이기 시작하는 것은 웅진천도 이후이다. 한성이 함락될 당시 백제는 신라에 구원군 1만을 요청하지만 한성이 함락된 후 신라군이 도착하였다. 고구려군에 의해 왕도가 함락되었고 신라군의 도움을 받지는 못했지만, 동성왕은 고구려와의 전쟁을 피할 수 없는 현실에서 신라의 도움이 절실함을 인식하고 있었다.

고구려와 신라가 재차 우호관계를 맺게 된다면 백제의 입장에서는 어려움에 처할 것임을 알고 있었기에 신라와의 화친이 필요하였고, 혼인 동맹을 선택했다. 다음의 기사는 동성왕대 백제와 신라의 관계를 보여주는 기사이다.

A-〈22〉 3년(481) 3월에 고구려와 말갈이 북쪽 변경에 쳐들어와 狐鳴 등 7성을 빼앗았고, 또한 彌秩夫로 진군해 왔다. 우리 군사와 백제·가야의 구원병이 길을 나누어 막으니 적이 패해 물러갔다. 泥河 서쪽까지 추격해 그들을 물리쳤는데 1천여 명을 목 베었다.⁹⁷⁾

A-〈23〉 6년(484) 가을 7월에 고구려가 북쪽 변경에 침입하였으므로 우리 군사가 백제와 함께 母山城 아래에서 공격하여 크게 깨뜨렸다.⁹⁸⁾

A-〈24〉 15년(493) 봄 3월에 왕이 신라에 사신을 보내 혼인을 요청하니 신라 왕이 伊滄 比智의 딸을 시집보냈다.⁹⁹⁾

A-〈25〉 16년(494) 가을 7월에 고구려와 신라가 薩水 별관에서 싸웠는데 신라가 이기지 못하고 犬牙城으로 퇴각하여 방어하고 있다가 고구려 군사에게 포위되었다. 왕이 군사 3천 명을 보내 구원하자 포위가 풀렸다.¹⁰⁰⁾

사료 A-〈22〉 ~ 〈25〉은 481년부터 501년까지의 전쟁 혹은 축성기록이다. A-〈22〉, A-〈25〉와 앞에서 언급한 A-〈13〉의 기록은 백제·신라가 共助하여 대고구려 전쟁을 수행하는 모습을 전한다. 그 외중에 A-〈24〉의 기록처럼 신라 이찬 비지의 딸과 혼인한다. 이처럼 이 시기 양국은 우호관계를 유지했다. 당시의 상황은 고고자료에서도 확인할 수 있다.

97) 『삼국사기』 권3 신라본기3 소지마립간 3년조, “三月 高句麗與靺鞨 入北邊取狐鳴等七城 又進軍於彌秩夫 我軍與百濟加耶援兵 分道禦之 賊敗退 追擊破之泥河西 斬首千餘級.”

98) 『삼국사기』 권3 신라본기3 소지마립간 6년조, “秋七月 高句麗侵北邊 我軍與百濟合擊於母山城下 大破之.”

99) 『삼국사기』 권26 백제본기4 동성왕 15년조, “十五年春三月 王遣使新羅請婚 羅王以伊滄比智女歸之.”

100) 『삼국사기』 권26 백제본기4 동성왕 16년조, “十六年秋七月 高句麗與新羅戰薩水之原 新羅不克 退保犬牙城 高句麗圍之 王遣兵三千救解圍.”

〈그림 3〉 5세기 후반 신라와 백제의 문물교류 사례(좌: 공주 송산리 舊1호분 과판
- 신라산-, 우: 경주 식리총 식리 - 백제산-)



즉, 공주 송산리 고분군에서 신라산 은제 허리띠 장식이 출토되었고¹⁰¹⁾ 신라 왕릉급 무덤에서 백제산 금동 식리와 청동용기류가 출토된 바 있다.¹⁰²⁾ 혼인동맹으로 양국 간의 우호관계는 더욱 굳건해졌다. 언제든 동맹국에서 적국이 될 수 있는 상황에서, 5세기 초반에 맺어진 동맹 관계가 5세기 후반까지 이어진 것은 고구려의 남진을 저지해야만 하는 두 나라의 이해관계가 일치되었기 때문이다. 그리고 이 시기 고구려의 백제 공격이 1회에 그친 것은 고구려의 공격 대상이 백제가 아닌 신라라는 점을 잘 보여준다.

이 시기의 백제는 고구려의 태도를 주시하면서 방어책을 마련하게 된다. 전쟁으로 인해 입을 수 있는 피해는 줄어듦과 백성들의 생활은

101) 최병현, 『신라고분연구』, 일지사, 1992; 최중규, 「제라야의 문물교류」, 『백제연구』 23, 충남대학교 백제연구소, 1992.

102) 이한상, 「신라고분 속 외래문물의 조사와 연구」, 『중앙고고연구』 6, 중앙문화재연구원, 2010.

차츰 안정되었다. 고구려에 공격을 당하는 신라를 지원함으로써 백제의 위상을 대내외적으로 드러낼 수 있게 되었다.

웅진기의 백제와 신라의 사이는 여전히 우호관계를 유지하고 있었다고는 판단된다. 그 이유는 두 나라 사이의 공방전이 보이지 않기 때문이다. 그러나 사비천도 후 신라는 나제동맹을 깨고 백제의 도살성과 금현성을 함락시켜 신라의 영토로 확보한다. 웅진기 백제와 신라의 동맹은 상호 군사지원을 주고받으며 큰 범주 안에서는 관산성 전투 이전까지는 화친이라는 틀을 유지하고 있었다. 백제와 신라의 동맹관계는 결국 웅진기에는 고구려를 대상으로 하여 고구려의 남진을 막는다는 공동의 목적을 가지고 있었기에 지속된 것으로 볼 수 있다.

4. 맺음말

이상의 검토 결과를 정리하며 맺음말을 대신하고자 한다. 한성함락 직후 고구려의 주력군은 서북방의 안전을 위해 회군하였고 일부는 한강 지류인 달천 상류를 따라 괴산-보은 방면으로 나아가 신라를 압박하는 한편, 남한강-금강 분수령을 넘어 미호천 방면으로 나아가 백제에 위협을 가했던 것으로 파악된다. 청원 남성골산성이나 대전 월평동산성은 고구려가 일시적이거나 미호천 나아가 금강 본류를 뛰어넘어 서남쪽으로 깊숙이 내려왔음을 보여준다. 그러나 청원 남성골산성이나 대전 월평동산성의 지리적 위치와 성의 구조로 보아 오랫동안 주둔한 것으로 보기는 어렵다. 더욱이 그 위치가 백제와 신라의 협공에 취약한 곳이라는 점도 고려할 필요가 있다. 즉, 고구려는 직접 지배를 목적으로 한강 유역 전체를 지배한 것이 아니라 전략적 거점에 한정하여 지배력을 관철함으로써 진출입로 확보에 주력하였음을 알 수 있었다.

고구려 남진에 대해 백제는 성을 쌓아 방비를 견고히 하는 한편 주변국과의 우호적 외교관계를 맺어 공동으로 고구려의 공격에 대응하였다. 특히 동성왕대에 이르면 축성 사업을 활발히 전개하는데 그 목적은 일차적으로는 왕도를 안전하게 방어하는 것이었지만 한편으로는 백제가 축성사업을 수행할 수 있을 만큼 수취체제가 복구되었다는 것을 보여주는 것이고 이는 어느 정도 백제 사회가 안정화되고 있었음을 상징적으로 보여주었다. 또 하나의 대응책으로 신라와의 혼인동맹을 들 수 있다. 공주에서 출토된 신라산 은제 허리띠나 신라 왕릉급 무덤에서 출토된 백제산 금동 식기와 청동용기류는 두 나라의 우호관계가 혼인동맹으로 이루어질 만큼 굳건해졌음을 보여주는 것이라 할 수 있다. 백제의 입장에서는 고구려의 태도를 주시하면서 방어책을 마련할 수 있었고 전쟁으로 인한 피해를 줄일 수 있었으며 고구려에 공격을 당하는 신라를 지원함으로써 백제의 위상을 대내외적으로 드러낼 수 있게 되었다.

국가 패망의 위기 속에서 백제는 정치적 혼란, 경제구조의 붕괴를 겪을 수밖에 없었다. 그러나 외교력을 1차로 발휘하여 누란의 위기에서 벗어난 다음 축성으로 표상되는 체제 재건에 나서 국가 안위를 지켜냈을 뿐 아니라 다시금 강국의 대열에 합류하게 되는데, 본고는 그 前史의 일부에 해당한다.

[원고투고일: 2014. 10. 1, 심사수정일: 2014. 11. 20, 게재확정일: 2014. 11. 21]

주제어 : 고구려, 백제, 청원 남성골 산성, 대전 월평동 유적, 전선, 축성, 수취 체제, 신라, 혼인동맹

<ABSTRACT>

The Development of the Front Line between Baekje and Goguryeo and Baekje's Responses Right After the Transfer of the Capital to Woongjin

Jang, Su-nam

This thesis is the study on an investigation of how Baekje dynasty had responded to the threats of Goguryeo advancing southward after Baekje relocated its capital to Woongjin. Based on the archeological artifacts and historical materials in the literature, the study firstly traced the development of the front line between Baekje and Goguryeo. The mountain fortress of Namseonggol, Cheongwon and the Wolpyeong-dong relics of Daejeon indicate that Goguryeo moved down even to Woongjin, the relocated capital of Baekje at that time, even though it was temporary. Baekje made two choices to stop Goguryeo from advancing south further and defend its capital: firstly it built castles to protect the capital. One good example of that was a large-scale construction project during the reign of King Dongseong. The second option was that Baekje formed an alliance with the neighbouring country, Shilla through the marriage of two dynasty's families in order to build up robust alliance that provide Baekje with military power for stopping Goguryeo's invading to the south toward the new capital.

In the middle of threatening of Goguryeo to the new capital of Baekje, the construction of castles as one of the defensive measures helped Baekje dynasty restore the collection system considerably and achieve stabilization of the country. Through its cooperation with Shilla, Baekje was able to defend itself from Goguryeo's invasion effectively and later exhibited its status home and abroad by giving assistance in reverse Shilla being invaded by Goguryeo. The events of Goguryeo's capturing Hanseong and advancing south were the challenges that the kings of

Baekje must deal with on the one hand and also the reasonable backgrounds for Baekje's rebuilding its defensive system on the other hand.

Key Words : Goguryeo, Baekje, mountain fortress of Namseonggol, Cheongwon, Wolpyeong-dong relics of Daejeon, the front line, construction of castles, the collection system, Baekje-Shilla alliance, Shilla, alliance through marriage